

여행업계 살린다면서…1년 내내 희망고문만

무안국제공항 폐쇄 1년 무너진 지역 관광 생태계



<3> 정부·지자체 말 뿐인 지원

“손님이 없는데 대출받을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용도가 낮은 업체들은 대출조차 받을 수 없는데 무슨 금고를 활용합니까.”

“용자 우선 선정이나 운영자금 한도 증액, 경영자금 대출 연장 등도 신용도가 좋은 업체만 혜택을 받습니다. 그나마 코로나 때 대출 안 받은 업체들은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여행사 책임보험을 들어줬는데, 무안공항이 폐쇄된 상황에서 그 보험을 가입해봤자 수요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되면서 지역 여행업계가 경영난에 봉착하자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했었다. 그리고 2개월 만에 관련 정책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환영받지 못했다. 여행업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생색내기성 지원책’이라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 폐쇄로 손님이 없어 자금을 빌려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정책 대부분은 용자 지원, 대출이자 보전 등에 치우쳐있는 데다 대형 업체에게만 필요한 보험료 지원 등 영세한 여행업체를 지원하려는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지역 관광업계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 등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용자 지원책’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도가 각각 운용하는 관광진흥기금을 통해 용자를 받을 경우 거치 기간과

용자 지원·대출 이자보전 치우쳐 신용도 낮아 업체 대출도 못 받고 보험 들어줘도 고객 없어 무의미 관광진흥기금 늘려도 쓸 업체 없어 업계 손실보전금 지원 절실한데 기재부는 현금성 지원 이유 반대

상황 기간을 미뤄주는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여행업체의 반응은 싸늘했다.

당장 전남도 관광진흥기금의 경우 참사 이후 단 11개 업체 (14억원)만 이 용자를 신청했다. 전남도에 등록된 여행업체가 639곳인 것을 감안하면, 1.4%에 불과하다.

여행업계는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해 자금 대출의 필요성이 없고 신용도가 좋지 않을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의 관광진흥기금 용자를 신청한 업체 11곳 중에서도 대출이 승인된 곳은 4곳 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도 비슷한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여행업체 대표 A씨는 “손님이 없는데 대출받을 회사가 어디 있느냐”며 “특히 신용도가 낮은 업체들은 대출조차 받을 수 없는데 기금을 활용하러기 만무”라고 꼬집었다.

특히 올해 전남도의 관광진흥기금은 전체 예산 160억 가운데 시설자금이 130억원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불황 속 시설에 투자하기 쉽지 않은 게 업계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가 추경을 통해 전체예산을 늘렸지만 운용 자금을 집중하는 섬세함은 보이지 못했다는 업계 지적이 나왔다.

대출금리 일부를 보전해주는 ‘이자보전 지원’에 대한 반응도 저조했다. 전남도는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혜택을 주는 경영안정자금을 기존 500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늘렸지만, 신청서를 낸 여행업체는 단 2곳이었다. 기업들이 관심이 적었던 건 관광기금과 마찬가지로 ‘대출받아 쓸 곳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되면서 지역 여행업계가 경영난에 봉착했다. 광주시 서구 매월동의 한 주차장에 관광전세버스들이 나란히 주차돼 있다.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배상책임보험료’ 지원책도 가입 업체를 찾아보기 힘들다. 연간 보험료 150만원 중 업체가 15만원 가량만 부담하면 되지만 업체들 사이에서는 불필요한 지출로 인식되고 있다.

박해련 탐클래스 여행사 대표는 “전세가 띄우는 업체에나 필요한 보험”이라며 “손님도 없는데 보험을 누가 들겠나. 그 돈으로 차라리 사무실 임대료를 내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관련 예산조차 없어 지원하지 못했던 전남도 홍보마케팅비에 대한 아쉬움도 컸다. 전남도는 지역 여행업체 639곳에 각 300만원의 홍보마케팅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현금성 지원이 아닌, 홍보용 물품을 구입하고 증빙해야만 지원된다는 점에서 한 톨이라도 아쉬운 업체들 입장에서는 경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나왔다.

무안공항을 기반으로 관광업에 매달려온 기업들은 공항 폐쇄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광주와 전남지역 여행업체의 피해액은 450억원

가량. 전남도는 업계의 입장을 반영, 기획재정부에 손실보전금 국비 반영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현금성 지원’이라고 선을 그었고 있다. 그러나 지역 여행업계는 지난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정부가 선보인 현금성 지원책인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을 들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라는 논리를 펴고있다. 비관적인 입장을 보이는 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여행업체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건 이달 중 발표될 ‘제주항공 참사 피해지역 용역’ 결과다. 용역 결과를 통해 지역 경제회복을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산출되고, 지원금도 언급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홍일성 전남관광협회장은 “용역에 직접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불확 속에 유족은 유족대로, 여행업체는 업체대로 합겨온 시기가 길어지고 있어 무안공항 재개항을 서두르는 데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무안·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전남 단체장 잇단 수사 지방선거 앞두고 ‘술렁’

지방 선거를 앞두고 현직 전남 지역 지자체장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지역이 술렁거리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지지 세력 확보에 나서는가 하면, 선거가 임박할 때까지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경우도 있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전남경찰청은 강진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강진원 강진군수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강 군수는 지난해 9월 30일 강진군 작전면의 한 농로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진행하던 중 50대 굴착기 운전기사가 장비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강 군수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작전면장 A씨와 부면장 B씨에 대해서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송치했던 조상대 곡성군수와 이상철 전 곡성군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최근 조 군수, 이 전 군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곡성군원들의 관공공사 뇌물 비리를 수사하던 중, 이들이 권한을 넘어 공무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이번 혐의는 지난달 송치된 정치자금 부정수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곡성군원들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청소년 패거리’ 있었다…경찰은 사건 축소 의혹

피해자측 “가해자 편의만 봐 주나” 광주경찰, 중학생 2명 입건 방침

광주시 북구 일대에서 ‘청소년 갯단’이 횡포를 부린다는 소문(광주일보 12월 1일 7면)과 관련, 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휴대전화를 갈취당했다는 피해자 증언이 나왔다.

경찰은 특히 피해자 진술에도 “패거리가 없었다”며 사건을 축소하려하거나, 가해자를 특정하고도 소극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광주시 북구 일대의 청소년 패거리 집단폭행 용의자 중 2명을 특정하고 강도상해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밤 10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신용동 일대에서 중학생 A군의 핸드폰을 빼앗고 돈가로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군은 손가락 골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학생 측은 당시 폭행을 당하기 10분 전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친구와 밖으로 나왔다가 청소년 무리 10여명과 마주쳤다. 이들은 피해 인근의 무인가게에 들어갔으나, 무리 중 2명이 따라들어와 휴대전화를 빼앗겼고 상가 건물 지하로 끌려내려가 청소년용 도구 등으로 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휴대

전화도 유심(USIM) 집만 돌려받았다고 한다.

가해자들은 “주변 친구들 중에 좋은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 “신고하면 보복할 것이다” 등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3일 새벽 0시 20분께 B씨의 신고를 받아 상황을 파악한 뒤 ‘어설폰 위장수사’로 용의자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북부경찰 건국지구대 소속 경찰은 23일 오전 중고거래 플랫폼에 A군의 핸드폰으로 추정되는 판매 글이 올라오자, 중고거래 현장을 직접 덮치겠다며 판매 글에 구입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정작 거래 현장에서는 “학생들 얼굴이

비슷비슷해 구분이 잘 안 간다”, “물증이 없다”는 등 이유로 판매자의 인적사항만 특정하고 빈 손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광주북부경찰로 넘겼다.

경찰은 피해 학부모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 사건을 방조한 학생들을 다수 지목했으나, 경찰은 “잘못 잡으면 무고죄로 걸릴 수 있다”며 직접 폭행한 2명만 특정했다는 것이 피해자측 주장이다.

피해학생 부모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미성년자인데, 경찰은 가해자 측 편의만 봐 주고 있는 것 같아 억울하다”며 “가해 학생들의 부모와 연락이 돼야 연행할 수 있다고만 전해듣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강제수사로 전환해 특정된 가해자를 검거할 방침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